

군산 명소 테마 신곡 '초원 사진관' 공개

호원대 RISE 사업단, 군산 명소·K-컬처 융합 '재미잇(it) 군산' 프로젝트 두 번째 음원 성과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RISE 사업단이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청년역량강화 프로젝트: 청년아이디어 재미잇(it) 군산'의 성과로, 지난 23일 신곡 '초원 사진관'을 정식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발매된 러브원의 싱글앨범 '시간을 건너서'에 이은 두 번째 음원 성과이다.



초원 사진관 음원 발매

한 국내 최초 종합 음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학과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혁신적 문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신곡 공개는 그 성과의 일환으로, 대학의 예술적 인프라와 지역 자원이 결합한 새로

운 브랜드 가치를 보여준다. 사업단은 이번 신곡을 포함해 싱글 2곡과 테마 음악 9곡 등 총 11곡이 수록된 종합 앨범을 오는 2월 말 발매할 예정이다. 해당 앨범은 특정 지역의 축제와 명소를 메인 테마로 기획한 국내 최초 사례로,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내는 문화적 협업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호원대 RISE 사업단 최부현 부단장은 "이번 신곡은 대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군산 고유의 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이 가진 풍부한 인적·예술적 자원을 지역 사회와 공유해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원대 RISE 사업단은 이번 신곡 공개와 2월 말 종합 앨범 발매를 계기로 지역 명소 콘텐츠화 사업을 확대하고, 전북 지역 문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제165회 정기연주회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지난 22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성료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문턱 낮춘 '고품격 클래식'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제165회 정기연주회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지난 22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또한 소프라노 구은경, 테너 강훈, 바리톤 허종훈은 각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조화를 이뤘다.

여기에 해설자 허철의 감성적인 해설은 오페라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부담 없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화려한 출연진 덕에 평일 저녁임에도 공연장은 객석이 고르게 채워져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공연의 감동과 여운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만호 기자

제6회 고창신재효문학상 공모전 8월까지 접수... 당선작 10월 발표

제6회 고창신재효문학상 공모전이 오는 8월 까지 접수 받는다.

주제는 고창의 역사·자연·지리·인물·문화 등을 소재로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판소리 관련 작품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가 가득한 고창의 이야기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담은 장편소설 공모전으로, 올해 제6회를 맞았으며 그간 5편의 수상작을 배출해냈다.

제1회는 김해숙 작가의 '금과', 제2회는 박이선 작가의 '염부', 제3회는 이준호 작가의 '조선사람 히라바 히데오', 제4회는 이수정 작가의 '단역배우 김순효씨', 제5회는 이강원 작가의 '따오기의 아침(가침)'이 선정됐다.

5회 수상자인 '따오기의 아침(가침)'은 오는 2월에 출간 예정이며 3월에 시상식과 출판기념회도 열릴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신재효문학상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제6회 공모전에도 많은 문학인들이 도전하여 좋은 작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6회 고창신재효문학상 공모전은 8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받으며, 당선작은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태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20)

그놈들 얼굴을 봤지?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경찰들이 트럭에서 내렸다. 모두 새로운 사람들이었다. 중대장이 경찰과 학도대 모든 병력을 집결시켰다.

"오늘 작전지역을 하달하겠다. 선운산의 좌측을 수색할 것이다. 월립으로 방향을 잡고 해립으로 들어가 심원 해안으로 나아갈 것이다."

막 떠오르는 햇빛은 중대장의 얼굴에서 어둠을 걷어갔다. 철모를 썼지만 중대장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강용대였다.

강용대는 국군에 입대했다가 낙동강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작전 8월 재대해서 마을로 돌아왔으나 인민군 잔존세력의 특색에 마을을 떠났다.

그새 경찰이 되었던 것인가. 반갑기도 했지만 울컥 눈물이 솟았다. 강용대는 자신의 부인과 어머니, 딸들이 죽은 것을 알고 있을까?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남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강용대에게 그 말을 해줄 사람은 자신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강용대에게 말을 해주으로써 같은 편을 얻게 되고 같이 힘을 합하면 남준이 바라는 복수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남준이 다가가 거수경례를 벌인 뒤 아는 체를 하자 강용대는 굳은 얼굴에 열린 웃음을 피워 올리며 남준을 반가워했다.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느냐. 가족들은 잘 있나 하는 질문을 강용대는 쏟아냈는데 남준은 마냥 반가운 표정을 지을 수 없어서 남준의 처지와 강용대의 가족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저,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강용대도 남준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운 것을 느꼈는지 얼굴에서 웃음을 지우고 진지한 눈으로 남준을 바라봤다.

남준은 강용대의 시선을 피하면서 강용대의 가족 상황과 남준의 처지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강용대의 처와 어머니, 딸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었다고 말했다.

강용대는 남준의 설명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제 정말이라고 재차 물었다. 남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강용대는 윗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선임소대장을 불러 대원들에게 잠시 병기 손질을 시키도록 지시한 뒤 천천히 모퉁이로 돌아갔다. 남준도 강용대를 따라갔다.

강용대는 바다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운 뒤에 남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놈들..... 얼굴을 봤지?"

"에."

"알았다. 가자."

강용대는 다 피운 담배꽂이를 바닥에 버리고 군화발로 짓기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바싹들처럼 무거웠다.

강용대는 남준의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남준이 학도대에 들어온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강용대의 현재 위치라면 원수를 갚아줄 수 있다.

기뻛고 가슴 벅찬 일이 틀림없는데도 예상보다 감흥이 그리 크지 않았고 오히려 무덤덤했다. 남준이 경험한 그 당시 상황과 남준이 갖고 있던 복수의 의지가 다른 사람 것인 양 거리가 느껴졌다.

담담하게 이 상황을 대하는 남준 자신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몇 개월 동안 학도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경의 총에 죽어나가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해서 그러는 것일까.

낯선 자신의 감정 때문에 허둥거리면서도 다른 의지가 파고드는 것을 느꼈는데, 바로 박명희에게 향한 마음이었다. 박명희가 위험했다.

남준의 말을 듣고도 강용대는 감정을 들어내지 않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분통을 터뜨리거나 혼돈 상태에 빠져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았을 것이다.

강용대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했다. 이런 사람이 더 무섭다. 강용대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움직여 목표물을 완전히 잠악한 뒤 숨기고 놀랐던 감정을 일시에 터뜨릴 것이다.

남준은 그래서 더 겁이 났고 누구보다도 박명희가 생각났고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생각에 빠져들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